

기획

SNS 줄고 뉴스레터 늘고 ... 포맷 패러다임 고민 필요

창간 62주년 기념 이용자 설문조사

차관호 기자 jypfphvh@khu.ac.kr

올해 대학주보 창간 62주년을 앞두고 대학주보는 구성원 미디어 이용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독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신문이 걸어온 혁신의 길이 맞는 방향인지 짚어보고 가야 할 길을 조망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창간 61주년 기념 이용자 설문조사(대학주보 제1607호 8면, 2016.5.23)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모바일이 대학주보를 접하는 제1의 미디어(55.6%)로 나타났고 절대다수의 이용자가 대학주보 소셜미디어(54.7%), 이메일 뉴스레터(40.7%)를 통해 기사를 접했다.

올해 동일한 설문지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설문 결과는 작년과 사뭇 달랐다. 대학주보를 이용하는 미디어로 스마트폰 등 이동형 인터넷을 꼽은 응답자는 47.4%로 지난해에 비해 약 10%p 하락했다. 통로 역시 달랐다. 인터넷을 통해 대학주보를 접한다는 응답자 중 소셜미디어로 대학주보 기사를 읽는다는 응답자는 33.3%로 지난해 조사에 비해 대폭 줄어 들었다. 반면 응답자의 60.6%가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대학주보 기사를 읽는다고 답해 이메일 뉴스레터가 주요한 채널로 부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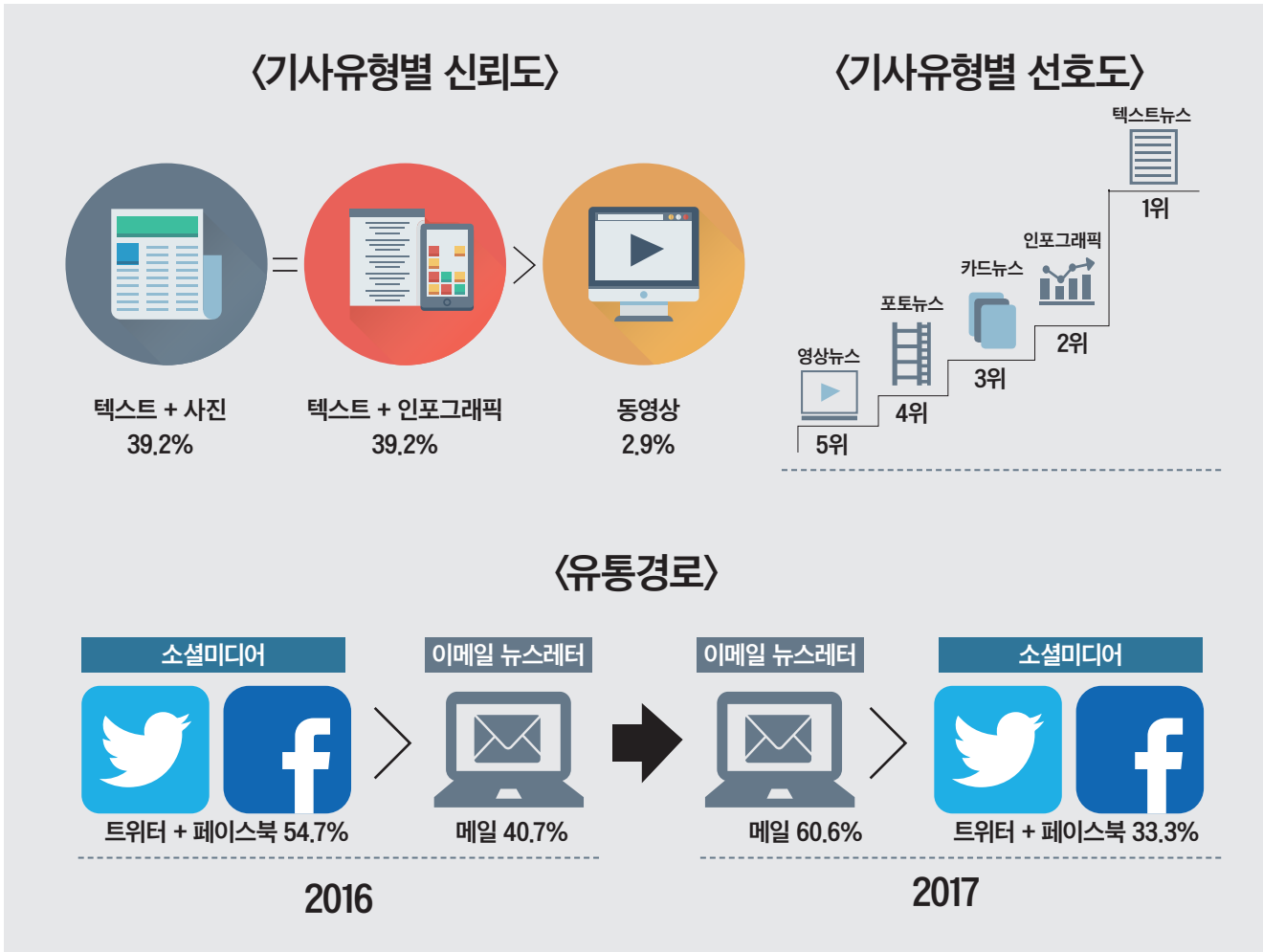
올해 초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운영, 에브리타임 게시판 운영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확장했지만 성과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계용량에 달한 기존 채널들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노력이 미진했거나 사용자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를 보다 편하게 접하게 해 드리고자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주보에의 접근성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설문에서 대학주보를 모른다

고 응답한 구성원 중 40.7%는 ‘콘텐츠 접근성이 떨어져서’를 이유로 꼽았다. 올해 조사의 같은 질문에서는 비중이 30%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신문으로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뉴스 큐레이팅의 시대에 우리신문이 구성원에게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주간 이용 일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선 주 2일 이상 대학주보를 찾는 독자가 응답자의 46.8%였지만 올해는 36.2%의 응답자만이 주 2일 이상 대학주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매일같이 뉴스를 전해드리고자 했던 대학주보의 다짐과는 달리 최근 기사 생산량이 부진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던 대학주보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날카로운 질책이라 생각한다.

포맷보다는 콘텐츠에 집중한 기사 선호

한편 올해 설문에서는 기사의 포맷과 관련한 문항을 추가했다. 지난해 설문에서는 학내 구성원이 어떤 형태의 기사를 원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주보는 ‘디지털 퍼스트’ 기조와 함께 디지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이 2015년 신설된 영상팀이다. 하지만 동영상 기사는 선호도와 신뢰도 모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선호도 100점 만점에서 텍스트 뉴스가 73.4점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인포그래픽 뉴스(69.7점), 카드뉴스(62.5점), 포토뉴스(61.9점)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고 동영상 뉴스는 32.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신뢰도 역시 선호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동영상 뉴스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다. 반면 ‘텍스트와 사



진’, ‘텍스트와 인포그래픽’이 혼재된 기사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뉴미디어 시대라 할지라도 독자들이 여전히 대학주보에 기대하는 ‘저널리즘’이 어떠한 형태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는 앞서 혁신에 대한 고민을 품었던 해외 언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2016 디지털 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5만여 명의 설문 대상 중 24%만이 평상시 동영

상 뉴스를 소비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소비되는 연성 뉴스 동영상과 달리, 경성 뉴스를 기반으로 한 뉴스 영상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다. 18~29세의 ‘젊은 성인’들은 동영상 ‘보기’보다 텍스트 ‘읽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포맷이 아니라 콘텐츠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매체 자체의 신뢰도는 학내 다양한 미디

어 중 가장 높았지만(57.4%) 그러한 지위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대학주보는 혁신을 이어갔다. 창간에 맞춰 매년 구성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독자의 목소리를 통해 혁신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어떤 형태의 뉴스를 독자들에게 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한다. 독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혁신은 자기만족에 그쳤을 것이다. 앞으로도 학내 구성원의 꾸준한 관심과 질타를 부탁드리며 대학주보에 보내준 신뢰에 감사드린다.

곧 사라질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교내 웹 환경 개편

차관호 기자 jypfphvh@khu.ac.kr

박예령 기자 cyon03@khu.ac.kr

나날이 다양해지는 인터넷 환경과 HTML5 등 차세대 표준 확산에 따라 교내 홈페이지들의 다양한 브라우저, 모바일 접근성은 어떠한지 살펴봤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ICT 정책 중 하나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액티브X 완전 폐지를 내걸었다. 액티브X는 인터넷이 보급되던 초창기,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으로 국내 온라인 환경에 뿌리 내렸지만 시대가 흐르며 인터넷 사용 환경이 다양해지고 웹 표준에 대한 여론이

대두되며 퇴출 운동에 시달리고 있다. 사용성의 측면에서 액티브X의 문제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인만큼, 윈도우즈와 Internet Explorer(IE) 환경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구성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의 경우, 로그인 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IE11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각종 증명서의 발급과 출력에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윈도우즈, IE 브라우저 조합 이외의 PC 환경이나 모바일에선 사용이 힘든 이유다.

일부 교내 단과대학, 학과 홈페이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령 공과대학 홈페이지의 경우 Adobe사의 플래시로 구현돼 있다. 웹 브라우저는 액티브X와 같은 추가기

능을 통해 사용자 기기에서 플래시 프로그램을 불러와 사용한다. 즉 사용자의 기기에 플래시가 설치돼있지 않거나 IE 브라우저가 아니라면 비정상적인 홈페이지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플래시는 랜섬웨어의 공격 통로로 악용되는 등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최근 웹 환경에서 빠르게 퇴출되는 중이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이용자들이 교내 웹사이트를 직접 이용하는 빈도는 적었다. 우리신문이 창간 62주년 기획으로 실시한 구성원 미디어 이용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내 뉴스를 접할 때 고정형·이동형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자 중 85%가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이메일 뉴스레터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었다. 해당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는 비율은 7%에 지나지 않았다.

교내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부서들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종합정보시스템, 웹메일 등 주요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지원처는 info21이라는 이름의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웹메일은 지난해 연말 구글의 ‘Gmail’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웹메일 서비스를 각종 PC용 브라우저, 모바일을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강신청 시스템 역시 2013년 개편을 통해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브라우저와 모바일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info21 사업도 궤를 같이 한다. info21은 2000년에 처음 구축돼 노후화 되고 이런 저런 증축을 통해 관리의 복잡도가 증가한 현재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 차세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5월 중 1단계 개편 결과로 행정, 연구와 관련된 기능들이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학사정보 시스템 등 모든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이후가 될 예정이다. 정보지원처 최창호 팀장은 “개편 완료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각 단과대 홈페이지의 개선은 불투명하다. 개별 홈페이지의 기획, 운영은 해당 단과대학이 담당하고 있다. 일관된 관리 기준이 없어 UI(User Interface)와 기능도 제각각이다. 이는 2013년 우리신문이 한 차례 지적한 바 있다.(대학주보 제1555호 5면, 2013.11.18)

웹 표준을 준수한 홈페이지로 개편될 것

학내 다양한 사이트의 사용성을 통일하고 다양한 사용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웹 표준이다. 온라인에도 도량형과 같은 하나의 표준을 도입해 같은 웹페이지라면 어느 환경에서라도 똑같이 보이고 정상 작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넓은 개념이다. 웹 표준을 준수한다면 별도로 모바일 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과 노력 없이도 하나의 웹페이지로 모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학교 양 캠퍼스 단과대학, 학과 홈페이지 중 W3C(World Wide Web Consortium)가 제공하는 웹 표준 권고 validator.w3.org를 지키는 웹페이지는 한 곳도 없었다. 주요 홈페이지 중에서는 구글 서비스로 이관된 웹메일을 제외하면 국

문 홈페이지와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이 웹 표준 권고를 지키고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이러한 웹 표준에 기반을 둔 메인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순 국문 홈페이지가, 연말 영문 홈페이지가 개편될 예정이다. 최신 웹 표준인 HTML5를 기준으로 개발해 사용자 기기 환경에 구애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담당하는 홈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공통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해 사용성과 유지관리를 모두 챙기는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각 단과대, 학과, 부속기관 홈페이지의 일괄적인 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해당 기관에 다양한 디자인템플릿을 제공해 전반적인 톤과 매너를 통일한다는 입장이다. 제각기 다른 접근성 문제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센터 박승훈 직원은 “현재 단과대, 학과 홈페이지들의 접근성 문제는 웹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다”라며 “웹 표준을 준수하고 전자정부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공통 CMS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웹의 아버지인 팀 버너스리는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09년 연말 아이폰의 발매로 촉발된 국내 웹 환경에 대한 제고는 이미 낡은 논의가 돼버렸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교내 웹 환경이 눈앞에 있는 개편들을 통해 나아지길 기대해본다.

